

가벼운 대중문화 진지한 문화이론

90년대적 문화현상 가늠하는 잣대로 독자들 관심 끌어

80년대에 가장 주목받았던 문화적 화두가 '민중문화'였다면, 90년대 문화의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것은 '대중문화'일 듯하다. 걸개그림과 노동가, 이념성 짙은 공연과 문학이 비평가들이 예의주시해야 할 중요한 덕목이었다면, 90년대, 지금의 상황은 분명 다르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동안 지나치게 사소하게 여겨져 무시해 버렸거나 필요악쯤으로 여겨 관심이 가는 것조차 애써 회피해 왔던 소위 '저속'한 '대중문화'가 중요한 문화적 비평의 대상으로 떠오른 것이다.

지금의 달라진 상황은 단허진 엘리베이터의 문을 아릇한 표정으로 쳐대는 내의광고에서 진정 그 상품과는 상관없는 현대인의 끝간데 없는 갈망을 읽어내고, 주현미의 트로트와 서태지와 아이들의 랩을 들으며 대중의 기호와 미디어 제국주의 시대의 속도경쟁을 감지한다. 이것만이 아니다. 이러한 눈에 보이는 의피 안에서는 정직한 분석이론으로만 가능한 중층적인 의미망이 섬세한 그물처럼 자리잡고 있다. 그 분석이 없고서는 현대사회의 애매모호한 특성들은, 증후군으로 떠도는 우리 사회의 '이상' 현상들은 정확하게 규명될 수 없을 것이다.

본격 문화이론지의 등장

이같이 변화된 상황의 심각성은 최근 본격 문화이론지를 탄생시켰고, 우리시대 식자그룹이 자신의 이념적 지향에 따라 포진하고 있는 각종의 계간지·월간지를 통해 '대중문화' 특집을 마련하도록 부추긴다.

강내희(중앙대 영문과), 박겨용(상명여대 영문과), 심광현(미술평론가), 이성욱(문학평론가) 등이 편집위원으로, 김진균(서울대 사회학과), 반성완(한양대 독문과), 도정일(경희대 영문과), 김정환(전 노문연의장, 시인) 등이 자문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는 「문화과학」(창간 1992년 여름)은 창간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대중문화 분석의 중요성을 든다.

“우리가 문화·과학’의 이름으로 진보의 기회에 동참하는 것은 문화가 전에 없이 중요한 계급투쟁의 장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오늘날 문화가 가지는 역할은 아주 크다. 문화는 재생산에 지대한 기능을 하는 이데올로기 작동의 중심영역이면서 또한 변혁의 꿈이 마련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에 대한 과학적인 인식을 확보하는 것은

그동안 사소하게 여겨져

무시해버렸거나 필요악쯤으로 생각해

관심이 가는 것조차 애써 회피해 왔던

소위 '저속'한 '대중문화'가 최근들어

중요한 문화적 비평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한 분석이

없고서는 현대사회의 애매모호한

특성들, 증후군으로 떠도는 '이상'

현상들을 정확히 규명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현단계 지배에 대한 정확한 대응의 하나이며 지배구조의 변혁을 위한 한 단초를 여는 일이다. 「문화과학」은 문화에 대한 과학적 인식 확보를 통해 변혁에 기여할 것이다...”

유물론 문화이론지임을 분명히하고 있는 「문화과학」은 창간호와 제2호(92년 겨울)를 통해 레이먼드 윌리엄즈의 문화유물론(“지배 문화분석의 한 모델”) 및 루이 알튀세르, 앙리 르페브르의 비판이론(“문화, 상징질서, 일상의 삶”)을 ‘과학적 문화이론’의 한 사례로 소개함과 함께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계간문예지 「문화과학」(92년 겨울호 통권 20호)에서 ‘대중문화, 그 불안한 가능성’이란 제하의 특집을 마련 논의의 수위를 대중문화 일반으로 넓힌다. ‘더 빨리 가거나 더 늦게 가는, 대중의 문화’(김진석, 인하대 철학과 교수) ‘키췌/진실/우리문화’(이영욱, 미술평론가), ‘대중음악의 분석’(이장적, 음악평론가), ‘뜨거운 감자를 잘 먹기 위한 기나긴 장정’(권성우, 문학평론가) 등의 총론과 각론에 해당하는 논문들을 실고 있는데, 김진석 교수는 ‘더 빨리 가거나...’에서 기존의 대중문화를 규정하는 몇가지의 이론적 허점을 지적한 후 오늘날의 대중문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파악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그가 지적하는 기왕의 허점들은 ① 고급문화와 대중문화를 대립적으로 구별하는 이론 ② 민족의 외부에서 이식되거나 수입된 문화를 외부로부터의 강제적 문화접목으로 이해하는 종속문화론 ③ 대중문화의 장을 계급지배의 장으로 이해하는 것 등이다. 이 가운데 「문화과학」이 표방한 방향을 지적하는 것일 수도 있는 세번째의 허점은 “대중문화를 그것



의 현실적인 복잡성에 따라 냉정하게 서술하고 분석하려는 시도에 장애가 되는 틀”로 “최종적인 경제적 결정론 및 그것에 입각한 알튀세르적 과학성에 의해 평가된다면 그렇게 대상화된 대중문화는 경제적 지배관계의 재생산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는 대중문화의 고유한 특징들을 간과하게 된다”며 또다른 입장을 보인다.

「세계의 문화」 92년 겨울호도 ‘사회와 문화’ 특집에서 영화 터미네이터에 나타난 시간의 개념을 다룬 ‘영화속의 시간의 확장, 영화 밖 삶의 재창조’(김영호, 서강대 강사)와 너무나 없이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열광적으로 빠져드는 컴퓨터 게임을 분석한 ‘포스트모던 어드벤처’(김중엽, 서울대 박사과정)를 실고 있으며, 이선영 유하 윤제림 허수경 등 젊은 시인들의 모임인 ‘21세기 전망’도 최근 세번째 동인집(「대중적 전위주의 선언」)을 내면서 기존의 시인동인 체제를 개방하여 문화동인으로 체제를 재정비, ‘네개의 신화를 통해본 한국 대중음악의 지형도’(강현, 영화기획자), ‘대중감성과 도시건축’(전진삼, 건축비평가) 등의 대중문화론을 신작시와 함께 실는 등 변화된 현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이같은 문예이론지들의 특점은 대중문화를 저급문화로 무시하지 않고 그 자체로 분석을 요하는 중요한 현상으로 인정하는 문화계의 인식변화를 대변하는데, 분석대상도 전자오락에서부터 노래방, 화장, 트로트, 만화, 비디오, 미술, 건축 등 대중문화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 대중문화를 바라보는 이같은 입장의 변화, 인식의 전환은 이를 분석할 참고할 만한 이론의 틀을 필요로 하게 되고 이같은 필요는

앙리 르페브르나 장 보드리야르, 볼프강 프리츠 하우크 등 2차대전 이후 유럽사회에서 발생하여 산업화 말기의 ‘소비 사회’의 특징을 분석하는 유용한 잣대로 이용되었던 그들의 문화이론이 최근들어 즐기치게 번역·소개되는 원인이 된다.

몇권의 문화이론서들

프랑스 공산당을 대표하는 지식인 가운데 한 사람인 앙리 르페브르가 지난 68년 펴낸 「현대세계의 일상성」(세계일보출판부)은 현대인, 현대사회를 이해하는 키워드로 ‘일상성’을 지목한다. 현대인의 일상은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 발달된 소비재로 인해 더욱 안락해지지만, 끊임없이 쏟아지는 광고메세지, 정보의 홍수, 이미지의 남용, 모든 것의 구경거리화 속에서 상상력의 상실을 강요당하는 세계다.

르페브르는 욕구와 자발성을 상실당하고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하는 대중소비사회 속에서 사는 현대인의 심층적인 불안에 주목하는데, 그는 이처럼 기술관료적 지배에 의해 외부로부터 결정되고 건립되는 사회를 ‘과잉억압의 사회’, ‘테러리스트 사회’라 명명한다. 이같은 저자의 일상생활비판의 근본목표는 현대인을 일상생활의 소외된 상태에서 해방시키자는 것이다. 해방의 방법은 ‘영구문화혁명’을 통해서다. 문화혁명은 창조, 자유, 소유, 양식, 효용가치, 인간존재 등의 개념을 전면적이고 충만하게 재건시키는 것이다.

독일의 철학자이자 유물론적 문화이론가인 볼프강 프리츠 하우크의 주요 논문들과 미술 비평연구회 대중시각매체연구분과 연구원들

의 논문들을 함께 엮은 「상품미학과 문화이론」(눈빛)은 자본주의 사회의 소비적·문화적 현상들을 분석하는데 서구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개념인 '상품미학이론'을 소개한다. 상품포장이 왜 소비자를 유혹하며, 현란한 네온사인은 왜 소비적 욕망을 부추기는가, 연예인들은 어떻게 해서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인기를 얻는가 하는 전통적인 미학이론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미적현상들을 이 개념을 가지고 분석해 낸다.

지난해 초 「소비의 사회」(문예출판사)가 번역되면서 국내에 처음 소개된 장 보드리야르는 최근 「기호의 정치경제학 비판」(문학과지성사), 「섹스의 황도」(술, 근간) 등이 잇따라 번역되면서 현대의 소비사회에 대한 그의 비판에 귀 기울이게 한다. 그는 자동차와 세탁기는 물론 화장품과 향수, 심지어 염색약과 면도기, 속내의 등의 광고에 휩싸여 물질적 향유와 쾌락, 끝없는 욕망 충족을 위해 안달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조명한다.

그의 말에 의하면 "소비의 사회는 욕구와 갈망 사이의 내면적 불균등이 점점 커져 적대관계로 가득차고 살기 불편한 사회"다. 교환가치가 지배하는 상품사회인 현대에서 '소의'는 필연적 현상이다. 그리고 그는 "소비의 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기호의 질서"라고 정의한다. 최근 번역된 그의 책 「기호의 정치……」 역시 대상물을 기호로서의 교환가치로 보는 시각에서 쓴 시론 모음이다. 그는 이 책에서 그림의 서명과 미술품 경매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자본주의 사회의 숨은 체계를 파헤치고 대중매체와 디자인의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분석하는 등 여러 각도에서 기호의 정치경제학에 입각한 사회비판을 행한다.

문화비평서 속속 출간

대중들의 환호속에 명멸해간 배우나 가수 등 대중스타에 관한 전기물이나 회고록은 '스타'들의 수만콤이나 셀수없이 많지만 왜 대중이 '스타'들에 그토록 열광하는지 이유를 캐묻는 것은 대중문화 비평가들의 몫이다. 최근 번역 소개된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드가 모랭의 「스타」(문예출판사)는 대중문화의 중요한 각론인 대중스타들의 존재를 현대사회의 특징적 현상이라 보고, 이를 현상사회학 및 발생사회인류학의 관점에서 규명한 저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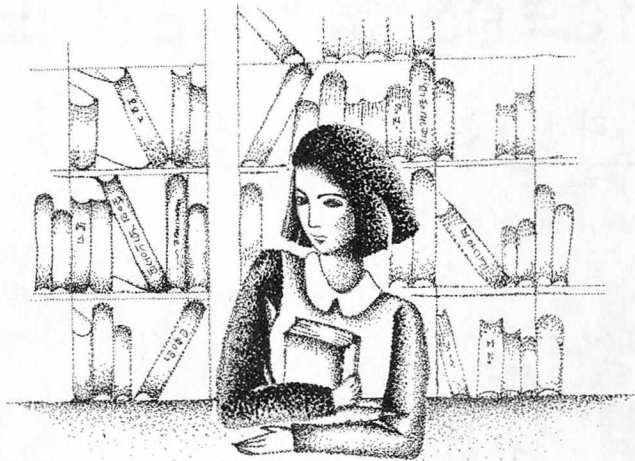
국내에서도 머잖아 한 대중스타의 '스타론'이 나올 전망이다. 최근 김열규(인제대 국문

과)교수가 최불암, 안성기, 김재박 등 텔런트, 영화배우, 야구선수 등 당대 최고의 인기 대중스타 11명을 만나 가졌던 대담내용을 묶은 「대중스타론」(세계사)을 펴내기도 했지만 오월출판사에서 현재 기획하고 있는 「최진실론」은 남성대상 여론조사에서 '애인상대 1위, 결혼상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최진실 '신드롬'의 정체를 분석, 90년대 우리 대중문화의 현주소를 밝히고자 해 관심을 끈다.

90년대 한국의 독특한 청년문화유형으로 기록될 '오렌지족'의 삶을 다양한 문화적 시각에서 분석·조명한 「압구정동 : 유토피아 디스토피아」(현실문화연구)는 그동안 '세속적'이고 '저속하다'는 잦아 하나로 외면해왔던 한 문화공간을 사제로 강내희('한국자본주의의 욕망'), 조혜정('압구정 공간을 바라보는 시선들'), 엄혁('압구정동 : 억압의 역사와 아이들의 미학') 등 학자, 시인, 미술평론가, 사진작가들이 다각도에서 조명, 한 문화공간 연구의 시금석을 놓았다.

이밖에도 TV평, 영화평 등 기존에 어느 한 두 분야에만 국한됐던 대중문화 비평이 「애니세대」(박병화 외 지음), 「만화비평」(손상익) 등 만화영화, 만화 쪽으로도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또한 현실문화연구팀이 「압구정동 : 유토피아…」 이후 「TV-가까이에서 보기와 멀리서 읽기」, 「광고 읽기」, 「청년문화 : 김민기에서 서태지까지」 등을 기획하고 있고, 새물결출판사가 현대 대중문화 이해를 위해 「그림시와 함께 읽는 문화」(1·2) 「에코의 대중문화론」을 내놓았거나 근간할 예정이며, 눈빛출판사가 '대중매체와 문화이론' 총서를 기획, 광고와 영화, 만화, 비디오, 컴퓨터이미지 등 다양하게 범람하고 있는 대중문화 현상을 이론화할 작업들을 서두르고 있는 데서 그동안 '가벼운 문화'로만 인식돼 오던 대중문화가 결코 '가볍지 않게' 논의되는 시대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정혜옥 기자



책장 채우기

함박눈이 펄펄 쏟아져 앞이 잘 보이지 않던 날이었습니다. 서울길이 아직 서툰 저는 빙판길을 잘못 딛어 몇번이나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그러나 꿈에도 그리던 보고싶은 어머니가 오시는 날이기 때문에 엉덩이가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더구나 어머니가 오시면 입학선물로 책장을 사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어머니랑 함박눈을 맞으며 중고가구점에 들러 제 마음에 꼭 드는 고풍스런 책장을 하나 골랐습니다.

갖고 있던 책들을 다 꽂아도 어린딸이 아버지 잠바 입은 것처럼 책장은 헐렁헐렁 했습니다.

시골에서 용돈이 올라올 때마다 책방에 들러 보고싶은 책들을 한아름씩 샀지만 책장을 채우기엔 어렵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헌책방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톨스토이의 인생독본, 루이제 린저의 생의 한가운데, 까뮈의 이방인. 표지가 날아가고 본문종이가 너털너털 했지만 제겐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먼지에 절고 사람들의 손때가 묻어 은근한 향내가 나던 그 책들, 어머니의 품처럼 편안하고 너그러운 아늑함을 주었습니다.

재산목록 제1호였던 그 책장은 몇번의 이사로 수난받아 제 곁을 영영 떠나갔지만 저의 마음 속에 남아 있는 보물상자입니다.



한솔기획은 책을 사랑하고 만들고 싶어하는 분들의 기획물을 찾습니다. 단 책으로 엮을 수 있고 그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분을 환영합니다. 올바른 출판문화의 주역이 되어보지 않으시렵니까!!!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4번지 옥빌딩 706호(세종문화회관 뒤) 대표전화 735-4997 팩스 722-3866